중국 - 세계적인 무역 마찰의 초점이 되어

중국과 미국 두 나라 정부는 영국의 런던에서 섬유 제품 및 복식 무역에 관한 양해 각서에 합의함으로써 반년 동안에 7번에 걸친 섬유 제품 무역 교섭이 마침내 끝을 맺었다.

관계자에 의하면 중국은 미국 및 유럽과의 섬유 제품 무역 교섭에서 기본적 성공을 거두었지만, 복잡한 국제 무역 정세에 직면하고 있어 앞으로의 대외 무역은 여전히 엄격하게 되어간다고 보고 있다.

요 몇 해 사이에, 중국은 매년 안티덤핑(anti-dumping) 조사 횟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몇몇 나라는 더욱 많은 기술, 환경, 지적 재산권 등과 같은 비관세 무역 장벽을 만들어 중국 상품이 수출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2005년 8월말까지 242가지 섬유 제품에 대한 제한 조치 외에도 13개의 나라나 지역이 중국에게 44번의 무역 구제 조사를 하였고, 조사 대상 금액은 15억 4천만달러에 이른다. 이들 중에는 안티덤핑 조사가 35건, 일반 보장 조치 조사가 4건, 세이프 가드 조사가 5건이 들어있다. 안건 수는 2004년 동기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조사 금액은 22.5% 증가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 공평무역국(商務部 公平貿易局)에 의하면 중국은 무역 마찰이라는 냉엄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다음의 다섯 가지 큰 문제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① 2005년에 EU의 중국에 대한 안티덤핑 조사가 급증하였으며, 조사 금액은 9억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 기간의 대중국 무역 구제 조사 금액의 60%

를 차지하고 있다.

②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안티덤핑 조사는 약간 줄고 있으나, 관세법 337조와 관련된 지적 재산권 조사가 날로 많아지고 있으며, 안티덤핑 룰 수정 등으로 제도에 의한 중국에 대한 무역 제한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

③ 인도, 터키, 남아프리카, 콜롬비아 등의 발전 도상국과의 무역 마찰이 새로 생겨, 2005년에 발전 도상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구제 조사는 29건이었고, 총 건수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④ 이번 2개월 간에 연속 5건의 세이프 가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영향을 받아 생겼다고 예상되는 연쇄 반응은 경시할 수가 없다.

⑤ 무역 마찰은, 제품이나 기업 등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부터 점차로 중국의 매크로 경제 정책이나 체제, 제도의 측면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정세로 보아 중국은 대외 무역 마찰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를 맞고 있으며, 세계 무역 마찰의 초점이 되었다.♣